

사랑의열매

Issue 134 \ June 2018
06

통일시대 남북 가교 될
북 이탈 청소년 기 살리기



개인 기부 최고액
50억 유치한
사랑의열매
모금 히어로 양호영 팀장





평화로운 직장생활

아침 7시, 오늘도 어김없이 춘천 가는 기차에 몸을 싣는다.
흔들리는 차창 사이로 비치는 6월의 아침 햇살,
등교하는 학생들의 시끌벅적 수다 소리, 요즘 출근길 일상이다.
귀에 꼽은 라디오에서는 연일 남북·북미 회담 보도가 쏟아진다.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의 화두인 지금, 평화로운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당연히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지만,
직장인인 나에게는 직장생활의 평화가 우선이다.
직장생활도 연애처럼 하라는 말을 들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지긋지긋한 직장생활이 연애처럼 달콤하다면
이보다 더한 평화가 있겠는가?

달콤한 연애처럼 직장생활을 하려면 우선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공감과 칭찬, 이보다 더 중요할 순 없다.
건성으로 하는 대답, 단답형 대답, 말허리 자르기...
그보다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공감하자.
지위고하 막론하고 직장 내 모든 관계에서 말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상사, 동료는 물론 모두를 춤추게 한다.

‘평화로운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감과 칭찬을 해보려 한다.
아직 늦지 않았겠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니까.

목차



08



First Person

개인 최고 기부액 50억 유치한 사랑의열매 양호영 팀장

12



특집

탈북 청소년 지원사업

16



현장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 열려

18



화제

쓸쓸한 생애의 끝, 고독사를 위로하는 손길

20



기획

삼성전자 '나눔과 꿈' 사업

25



포토뉴스

사랑의열매, 정동야행 행사 참여

26



착한기업

NH한국토지주택공사

30



희망스토리

어르신 여생의 친구 같은 동반자

32



착한일터

KAI 나눔봉사단



Cover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한 사나이의 열정이 개인 기부 최고액인 50억 원 기부를 이끌어냈다. 일면식도 없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를 설득해 개인모금시장의 메가기프트 시대를 연 양호영 팀장을 만났다.





34

•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
경기 파주

38

•
The Page
탄소포인트 활용해 녹색습관을 기부버릇으로

40

•
Alive CCK(Community Chest of Korea)
경북 공동모금회

44

•
나눔 리포트
모금단체의 투명성 시비 '임팩트 전략'으로 맞선다

46

•
나의 나눔 이야기
하늘나라 어머니의 이름으로... 영마주의의 행복한 기부

47

•
모금회 뉴스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6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7

•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34 2018 / 6

발행인 김명자
 발행일 2018년 6월 / 통권 134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모이면, 희망이 보입니다.

사랑의열매는 개인기부 33만 명, 착한가게 2만 3,184여 곳,
아너 소사이어티 1,772회원과 기업 28,047개의 참여로
매년 더욱 풍성하게 열립니다.

201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5,553억 원**
(81만 건)은 국내 10대 자선단체와 모금기관의
국내 공익사업비 지출 1조 600억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출처_한국가이드스타>

빈곤 지원
3,990억

질병 지원
749억

소외 지원
814억



빈곤
분야 지원액

기초생계
2,567억

교육·자립
925억

주거·환경
498억

질병
분야 지원액

보건·의료
607억

심리·정서
142억

소외
분야 지원액

사회적돌봄
377억

소통·참여
260억

문화경차해소
177억

2017년 총 지원액

5,553억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 전문 기관입니다.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장 투명한 기부금 관리,
공정한 지원절차로 대한민국의 민간 복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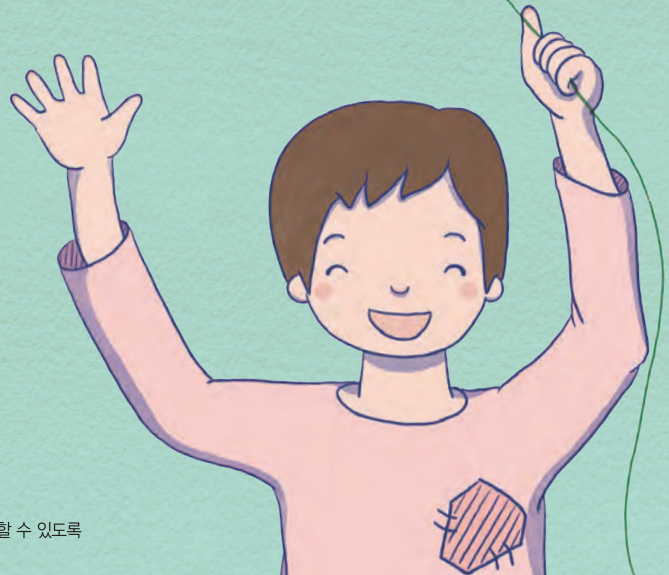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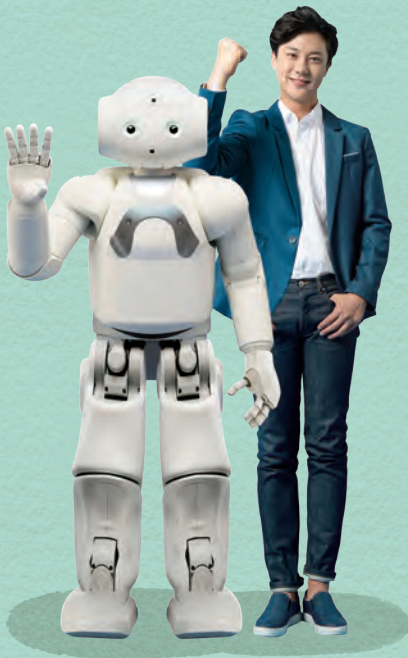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나눔의 새로운 길

사랑의열매가 시작했습니다

가난으로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 굴레를 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꿈을 이루는 기회를 줍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14~24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로지원을 돕는 '희망플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부상담 080-890-1212 | ARS 기부 060-700-1212

First Person

글 한상현 사진 이경호

기부를 기쁨으로 만드는 게 사명이라는 양호영 중앙회 중앙회 개인모금팀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지난 3월 8일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개인 최고 기부액인 5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전달식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김봉진 대표를 만나 초고액기부를 이끌어 낸 모금사업의 히어로 양호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본부 개인모금팀장이다.



지난해 개인모금팀에 주어진 모금 목표액은 100억 원. 모금 성과는 나지 않고 야속하게 시간만 흘러갔다. 양호영 개인모금팀장은 웃음을 잃어갔다. 이마의 주름과 한숨이 깊어졌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김효진 모금사업본부장의 눈에선 금방이라도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았다. 전전공공하던 양호영 팀장의 간절한 눈에 뉴스 한 줄이 들어왔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0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양 팀장은 눈이 번쩍 뜨였다. 시간도 없는데 아녀 100명을 설득하는 것보다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김봉진 대표를 만나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연고도 없고 일면식도 없지만 도전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김 대표와 연결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1달 뒤 기회가 왔다. 함께 일했던 지인이 우아한형제들의 우유배달 봉사 관련 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어 사회공헌사업 담당자와 연결이 된 것이다. 그때부터 밤잠 설쳐가며 제안서를 만들었다. 멘트부터 제킷의 버튼 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큰 산이 세 개나 됐다. 심지어 높았다. 날이 선 질문 공세에 만신창이가 됐다. 2개월 동안 피 말리는 긴장감과 기다림으로 살았다. 모금의 가치를 알기에 감내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다. 공동모금회 설립 후 직원 개인 모금 최고액을 경신한 양호영 팀장은 메가기프트 시대를 연 모금 히어로다. 그가 50억 원 기부를 이끌어내기까지 풀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Q 우아한형제 담당자가 쉽게 만나주었나?

“김봉진 대표가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은 했다.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구체적인 사용처를 생각하지 않았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재단 설립 추진이 많이 진전되어 있었다. 그래도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 부문에선 전문가니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제안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2주 후에 보자고 하더라.”

Q 2주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어떤 준비를 했나?

“재단 설립의 장단점과 공동모금회에서 재단 형식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선택했을 때 장단점, 그리고 재단 설립 후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준비했다.”

Q 첫 미팅 날이 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담당자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한 분이 더 나오셨다. 우아한형제들의 최고자문위원(CAO)을 맡고 있는 신병철 박사였다. 대기업 임원을 역임하셨던 분이였다. 재단의 이사를 맡을 후보이기도 했다. 재단 설립과 운영의 핵심 인물을 만나 직접 설명을 할 수 있으니 운이 좋았던 거다.”

Q 비장의 무기는 준비해 갔나?

“재단 설립하시는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세금 부문이다. 법정기부단체인 공동모금회에 개인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이 높다는 것을 소개했다.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그렇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도였다.



양호영 팀장(가운데)과 개인모금팀원들

Q 첫 미팅 후 피드백이 궁금하다.

“저도 무척 궁금했다. 그러나 먼저 연락할 수 없어 답답했다. 처음 3일은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4일 지나니 ‘아~ 까였구나!’ 생각했다. 딱 일주일 뒤 연락이 왔다. 김봉진 대표 앞에서 브리핑을 해보라는 거였다.”

Q 김 대표의 첫인상은 어땠나?

“큰 기업의 대표답지 않게 편하고 소탈했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력도 높았다. 큰돈 있어 남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당연히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마인드였다. 기부를 통해 회사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Q 김 대표와 미팅에서 어떤 드라마가 있었나?

“브리핑은 잘 마쳤다. 그런데 의외의 질문을 받았다. ‘내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 기부자의 조언대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공동모금회에는 어떤 이득이 있나’라는 것

“모금이라는 것이 매력 있다. 영업은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고 물건을 파는 것이다. 그런데 모금은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 단지 가치를 주는 것이다. 기부를 하면 어떤 가치가 생기는지 설득을 한다. 그런데 주는 것 없는데도 기부를 하신다. 기부를 하시면서 심지어 ‘이것밖에 못해 미안하다’고 하신다. 기부자를 만나면 내가 배우는 게 많다”

이었다. 그때 솔직히 말씀드렸다. ‘초고액기부라는 새로운 기부문화의 마중물 역할을 김 대표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누구도 걷지 않은 길에 첫발을 내디더 달라’고 했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12월 말에 미팅을 했기 때문에 해가 바뀌어 연락이 왔다. 휴대폰을 권 손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Q 이번엔 기부를 약속하는 연락이였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번 미션은 ‘이사들을 설득하라’였다.”

Q 산 넘어 산이다.

“김 대표도 재단 만들면 모시려 했던 이사들의 동의가 필요했던 거다. 또 이사들 중에 공동모금회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계셨다. 이번엔 공동모금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미션이었다. 사업 설명이 끝나고 송곳 같은 날 선 질문들을 맨몸으로 맞았다. 저녁 7시에 시작한 브리핑이 9시 넘어서 끝났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솔직히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

Q 마음을 내려놓은 것인가.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3일 후에 연락이 왔다. 퇴근길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금회와 가려고 합니다’라는 말이었다. ‘으악~’ 하는 환호성이 목젓까지 올라왔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금활동을 하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다.”

Q 모금회 설립 이후 50억 원 기부를 이끌어 낸 최초의 직원이다.

“최초라는 기록은 기분 좋다. 하지만 우리를 믿고 기부를 결정해 주셨으니 부담도 크다.”

Q 공동모금회가 개인기부자 발굴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공동모금회에서 개인기부는 33% 정도지만 금액만으로 보면 전국 어느 단체와 비교해도 규모가 크다. 기업이 큰 금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촘촘히 기부를 해 주는 것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 풀뿌리 모금이 늘어나야 기부 토양 자체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이번 건은 초고액기부라 결은 다르지만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 고액기부자인 언어나 소사이어티도 처음엔 고전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 세계 두 번째다. 고액기부 모델을 다른 나라가 배워갈 정도다.”

Q 양 팀장은 모금회 입사 땀 모금사업팀이 아니었다고 들었다.

“인사담당자로 입사했지만 모금사업팀에 자원했다. 모금이라는 것이 매력 있다. 영업은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고 물건을 파는 것이다. 그런데 모금은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 단지 가치를 주는 것이다. 기부를 하면 어떤 가치가 생기는지 설득을 한다. 그런데 주는 것 없는데도 기부를 하신다. 기부를 하시면서 심지어 ‘이것밖에 못해 미안하다’고 하신다. 기부자를 만나면 내가 배우는 게 많다.”

Q 양 팀장에게 모금이란?

“모금은 나의 정체성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대표되는 거다. 모금가의 역할은 누군가를 만나 기부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그 가치의 선택이 기부자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이다. 또 그렇게 기부된 돈이 누군가의 행복이 될 수 있기에 모금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Q 전국의 모금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일단 던져라.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 아닌가. 기부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힘들 것 같더라도 일단 기부를 제안해 보면 좋겠다. 공동모금회의 모금은 앉아서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결코 아니다. 누군가 열심히 뛰어다녀야 한다. 또한 공동모금회에 근무한다면 ‘국내 모금 분야에서 내가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발걸음이 모금 분야의 선행이 될 수 있다.”

Q 양 팀장만의 모금 노하우가 있나?

“던져서 만남이 성사되면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하게 기부자를 파악해야 한다. 기부자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냥 던지기만 하면 돌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김봉진 대표를 만날 때 배달의 민족에서 진행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배지를 달고 갔었다. 작은 것이지만 김 대표는 알아봐주었다.”

Q 개인기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신다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당연한 거다. 저는 빗진 자다. 저를 통해 기부한 분들에게 제가 빚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봉진 대표에게 50억 원을 빚진 거다. 빚은 갚아야 한다. 기부를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명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나?

“이제는 메가기프트의 시대를 열고 나가야 하는 시기다. 정체된 기부 시장에 활력이 될 이슈다. 김봉진 대표가 메가기프트의 마중물이 되어주었다. 이제 시작이다. 초고액 기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분야를 발전시키고 싶다. 고액기부 시대를 연 언어나 소사이어티도 초기엔 고전했었다. 토대를 잘 다져놓으면 기부문화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다.”

특집_탈북청소년 지원사업

글 한상헌 사진 조현호, 공동모금회

“통일이 되면 너희가 남북화합 주역” 언어·정서 장벽 극복해 남쪽 생활 적응 돕는다

10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났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손을 맞잡은 건 분단 후 처음이다.
포성이 멈추고 전쟁 위험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더 나아가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도 꿈꾸고 있다. 다가올 통일의 시대 주역이 될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공동모금회가 앞장서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다. 북한을 나와서 남한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018년 3월 현재 3만 1,530명이다. 탈북 동기를 보면 1995년부터 경제난으로 인해 이탈 주민들이 많았다면 최근 10년은 자녀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가족 단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탈북청소년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만 6세부터 20세 이하 청소년이 전체 11.6%인 3,527명에 달한다. 이들 중 초·중·고 정규학과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2,764명으로 나머지는 기숙형 대안학교나 학교 밖 생활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남한에서 생활하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춘기에 접어들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탈북청소년들을 상담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배경호 극단 세븐파이프 대표
**“생각했던 것보다
 적극적이라 놀라”**

북한이탈청소년과 처음 대면을 했다는 배경호 극단 세븐파이프 대표. 첫 수업을 마친 소감을 묻자 “요즘 남한 청소년들과 마주하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쳐다만 본다”며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극적이라서 놀랐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마이스토리 창단에 참여하면서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다. “원래는 꿈도 비전도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접점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시작하게 됐어요.” 배 대표는 “완성도 높은 극단이나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이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겪는 성장통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로 대중에게 연극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지 궁금해진다. 12월 공연이 기다려진다.

✓ 나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마이스토리’ 감수성 예민한 시기… 사회적 편견과 차별 상처 치유

한국근로청소년능력개발원은 삼성전자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나눔과꿈’ 사업 모를 통해 탈북청소년 자긍심 회복을 위한 연극단 ‘마이스토리’를 창단했다. 아이들이 직접 희극도 쓰고 연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운제 한국근로청소년능력개발원 사무총장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마주한 남한 사회는 따뜻함보다 냉혹한 현실을 먼저 경험했을 것”이라며 “이들이 받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상처들을 연극이라는 문화적 완충장치로 해소하고자 연극단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두리하나국제학교에서 마이스토리 창단 후 첫 연극 수업이 진행됐다.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극단 세븐파이프 배경호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배경호 대표는 연극을 만들 때 각자 맡아서 수행할 역할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연출 파트와 연기 파트, 무대



및 음향 담당 등 세부적인 역할들이 주어지자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연기를 해보고 싶은 지원자를 뽑자 막내 지은(가명·13)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반응이 시큰둥한 언니 오빠와 달리 적극적이었다. 자신을 표현해 보라는 미션에 멋진 춤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배 대표는 “첫 만남이라 소극적으로 임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앞으로 진행될 수업이 기대된다”고 했다.

기존 연극배우들에게 이론과 연기 배워

이제 아이들은 연극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배우게 된다. 연극 창작에 필요한 이론부터 연기를 실제 연극배우들에게 배우게 된다. 대본 작업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 또한 전문배우들이 공연하는 연극과 뮤지컬을 관람하면서 자신이 오를 무대에 대한 동경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근로청소년능력개발원은 올해 12월 북한이탈청소년이 직접 만든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윤제 사무국장은 “앞으로 매년 새로운 북한이탈청소년을 마이스토리에 참여시켜 건강한 연극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어 배우는 어플 ‘글동무’

제3국 출생 청소년 자녀 많아... 스마트폰 활용해 접근력 높여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언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이다. 신조어와 외래어가 많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어렵다. 특히 학교에서조차 국어 교과서를 해독해야 할 정도로 남과 북의 언어 차이가 크다. 길거리 간판을 보고 업종을 파악하는 것도 이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5년 전 부모님과 북한을 탈출해 어렵게 남한에 오게 됐다는 대학생 최소민(가명·21) 양. 컴퓨터가 고장이나 수리를 맡기기 위해 ‘컴퓨터 클리닝’이라고 적힌 가게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 컴퓨터는 없고 다림질하는 아저씨와 눈이 마주쳐 컴퓨터를 들고 다시 나온 경험이 있다.

남한에 들어와 축구선수를 꿈꾸는 정영호(가명·18) 군은 경기 중 친구에게 패스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서로 사용하는 말이 달라 생긴 해프닝이었다. ‘패스해’라고 해야 하는데 ‘연락하라’라고 하니 못 알아들은 것이다.

모르는 단어 스캔하면 북한어와 뜻 알려줘

이에 드림터치포올은 제일기획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한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글동무’ 어플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청소년에 익숙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한국어 접근력을 높였다. 글동무는 북한이탈청소년은 물론 북한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직접 다운받을 수 있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면서 낯선 단어가 나오면 스마트폰에 깔아 놓은 ‘글동무’ 어플을 실행시킨다. 첫 화면에 단어를 스캔하는 번역기가 뜬다. 네이버 검색창처럼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 안에 단어를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스캔을 해 북한어와 단어의 뜻을 알려준다. 네이버 스마트렌즈와 비슷하다. 글동무는 다른 번역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중국어까지 알려준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간한 탈북학생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제3국에서 출생해 남한에 입국한 청소년이 1,437명으로 전체 탈북청소년의 56.6%를 차지한다. 이 중 98%는 중국에서 태어났다.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익숙한 아이들이 많다. 드림터치포올은 이밖에도 글동무 홈페이지(www.geuldongmu.org)를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남한 생활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집단상담프로그램 ‘심 호흡’

탈북청소년의 가족 수용성을 높이고 미래가족상에 대한 탐색을 도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KB손해보험 지정기탁사업)의 지원으로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가족’을 주제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心) 호흡’을 개발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탈북과정에서 부모와의 이별, 재회, 또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는 등 가족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하며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를 경험한다. 청소년기 불안정한 가족형태 경험은 가족 내 갈등, 정체성의 혼란, 한국 사회 부적응 등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진행하는 ‘심(心) 호흡’은 북한이탈청소년이 자기 수용과 가족 수용을 통해 현재의 가족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긍정적인 미래 가족상을 탐색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다. 박연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상담사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가족 문제로 인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가족을 주제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전무해 ‘심호흡’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떨어져 지낸 가족이라 서먹서먹... 서로 이해하는 계기

이번에 진행된 심호흡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여한 탈북청소년 안모 군은 “가족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며 감상을 전했다. 양모 군은 “장기간 기숙학교에서 함께 지내온 친구인데도 서로의 가족에 대해 잘 모른다”며 “집단상담(심호흡)을 통해 ‘친구도 나와 비슷하구나’라는 동질감을 갖게 되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최모 양은 “내가 엄마한테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천모 군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박연옥 상담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의 가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었으며, 가족에 대한 생각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했다.

현재 이주배경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심 호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면 매뉴얼로 만들어 8월 말 전국 탈북청소년 관련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

현장

글 한상현 사진 임영근, 최환석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엄마하고만 살아도, 아빠랑만 놀아도 행복해요

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이다. 지난 1월 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이 됐다.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인데 '입양보내기보다 원래 가정의 양육이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하루 전날인 10일로 정했다.

'한부모는 신분이나 상태다'라는 말이 있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가족의 비율 또한 갈수록 높아지지만 사회적 인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한부모가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받고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이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깜짝 출연해 축하 인사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18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 및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한부모연합과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미혼모·한부모들과 관련 단체장은 물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날 기념행사의 슬로건은 '한부모가족, 다 같은 가족입니다'였다. 행사는 한부모가족 정책 변천사 영상 상영, 내빈 축사, 한부모가족 인권선언문 낭독, 한부모가족 서포터스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전 예고 없이 행사에 깜짝 방문한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날 뜻깊은 행사에 오게 돼 기쁘다.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편견이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요'라며堂堂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련 정부 기관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혼인 외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인권



1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행사장에 깜짝 게스트로 나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 행사 참가자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각종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축하하고 있다.
 4 한부모 서포터스들이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연하고 있다.

시각에서 본 다양한 한부모가족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지영 여주대 교수, 조가영 인트리 활동가, 진진 '명랑캠 페인' 이사,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양신 하 <한겨레신문> 기자, 임한길 사회복지사, 장희정 인천한부모가족센터 센터장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방 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서울광장에서는 한부모 발언대·축하 공연도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도 5월 12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부스가 마련돼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인 권선언문 낭독, 한부모 발언대, '당당한 한부모상' 시상식, 아이들 그룹인 베베식스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행사 내내 그치지 않았지만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미혼모·한부모가족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참석해 축하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웠다는 김연순 군포여성민우회 활동가는 한부모 발언대에 올라 "매년 한부모 지원법이 개선된다지만 당사자들에게겐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며 기존 지원 정책 개선에 대해 말했다. 한부모가정에도 현실적인

수준의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 초·중고생의 한 달간 지출하는 1인 평균 사교육비가 27만 원인 시대에 지금의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수준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한부모 김진주씨는 "현 교육제도와 경쟁구도 속에서 한부모가족 자녀들은 교육비 지원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한부모의 열악한 경제력으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문화가정 한부모에도 깊은 관심

우리 주변의 한부모들이 모두 한국인은 아니다. 외국인 한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일본인 구마리 도모미 씨는 "지원 제도는 많은데, 한꺼번에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저는 그래도 형편이 낫지만, 그렇지 못한 외국인들도 많으니 이런 상황을 배려해 정책을 마련한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혼모·한부모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려 결성된 '한부모가족 서포터스'가 곧 활동에 나선다. 한부모가족 서포터스란 초기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는 이들이다. 미혼모·한부모 지원 단체 활동가들, 한부모가족 후원자 등 29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 발대식을 열었고, 전문 교육을 받은 후 전국 각지에서 초기 한부모 발굴과 상담지원 등을 맡는다. ❀



장례지원 성금 4,500만 원 쓸쓸한 생애의 끝, 고독사를 위로하는 손길

가정 붕괴와 고령화 사회의 그늘에서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사례가 너무 자주 나타나 깊은 한숨을 쉬게 만든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무연고사 장례지원 성금을 기탁하며 나눔을 통해 그 그늘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임중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 선친 이름으로 기탁

임중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고독사·무연고사 장례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4,500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성금 전달을 위해 지난 4월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한 임중한 상임대표는 선친 고 임흥달 선생의 이름이 적힌 '나눔리더' 인증패를 전해 받으며 성금 기탁의 동기가 돌아간 선친의 유지에 있음을 밝혔다.

임중한 상임대표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평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을 접하시고 많이 안타까워하셨다. 그런 아버님의 바람에 따라 조의금 일체를 무연고 장례를 위해 기부하게 됐다”며 “고독사와 무연고사 등의 쓸쓸한 죽음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고독사’라는 외롭고 민망한 상황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눈을 감는 이 쓸쓸한 현상은 시신이 방치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간 존엄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그 비율이 57%나 증가했으며 지난해 고독사 사례가 2,0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정의 증가와 홀어르신에 대한 복지 시스템 부재 속에서 임종한 상임대표의 고독사·무연고사 장례지원 성금은 외로운 죽음에 나눔의 정을 전한다는 점에서

큰 울림을 만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이 더는 외롭지 않을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평안한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평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을 접하시고 많이 안타까워하셨다. 그런 아버님의 바람에 따라 조의금 일체를 무연고 장례를 위해 기부하게 됐다. 고독사 등의 쓸쓸한 죽음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에도 관심음”

임종한 상임대표는 일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주민과 이웃을 위해 헌신한 선친에 이어 일선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연구하는 의료활동에 정진해 왔다. 특히 그는 작업 환경이 열악한 3D 업종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화상과 신체 절단,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종괴종 등 직업 관련성 사고와 질환에 의해 모진 고생을 하다 죽음을 맞는 이들의 곁에 서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개탄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 여기게 됐다.

“아버님의 몸에 배인 청렴과 정직을 우리 남매들이 평생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성금이지만 제가 바라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한편으론 우리 주변을 돕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금액이라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부족과 결핍이 있는 상황이 더 많은 노력과 도전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는 일에 더 열심히 뛰어든 생각입니다.”

임종한 상임대표가 기탁한 성금 4,500만 원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이 기금을 기반으로 무연고 저소득층 추모지원 및 웰다잉 교육, 작은 장례조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조촐한 장례식이 그들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해줄 듯싶다. 

기획

글 박미진 사진 한준호, 공동모금회, 사회적 기업 슬아,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사)문화나눔초콜릿

사랑의열매·삼성전자의 나눔과꿈 사업 22대1 경쟁률 뚫은 드림파워

재원 부족으로 좋은 사업임에도 실행이 어려웠던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나눔과꿈' 프로젝트가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100억 원을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1,100여 개 단체가 신청, 22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이도, 성별도, 지역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화제의 '나눔과꿈' 지원 사례들을 소개한다.





터무늬 있는 집

선배 세대가 출자하고 후배 청년들 입주
협력형 공유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덜어



지난 5월 11일 금요일 저녁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다가구주택 옥상에서는 봄바람만큼이나 따뜻한 오픈하우스가 진행됐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주최하고 삼성전자가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지원사업인 '터무늬 있는 집' 1호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4층에 새로 입주한 6명의 청년은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출자자들과 이웃, 지역 청년,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초대해 사업 진행 보고와 더불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감사증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즘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10년 만에 77% 상승해 그 어느 때보다 거주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사는 셰어하우스로 힘을 보태도 지·옥·고(지하주택, 옥탑방, 고시원 등)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바로 터무늬 있는 집인 세대협력형 공유주택이다. 번동 다가구주택의 17평짜리 터무늬 있는 집 1호의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은 선배 세대들이 무이자나 저이자로 장기 출자해 마련해 주었다. 여기에 청년들이 사용료와 공과금을 포함한 주거비로 1인당 월 10만 원 내외의 비용을 내며 공동주거하게 된다.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주거비용이 확실하게 줄어든 셈이다.

시민출자기금 참여자인 김수동씨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선배 세대로서 마음의 빔을 느껴 참여하게 됐다. 월급이 60만 원인 어르신부터 주부, 단체 등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많은 선배 세대가 참여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국에 널리 확대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입주자인 박철우 청년은 “처음에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뤄져 정말 감사하다”며 “선배 세대들의 마음을 본받아 저희도 후배 세대들에게 나눔을 전할 수 있는 선배가 되겠다”는 또 다른 나눔의 약속을 전했다.



소·나·기 오케스트라

다문화 포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주 1회 연 30회 과정을 3년간 교육

어린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부터 여름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함까지 소나기라는 단어로 연상되는 느낌은 참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기업 솔아를 통해 만난 소나기는 귀를 적시는 아름다운 선율과 건강한 어울림, 그리고 작은 기적이다.

소나기(소중한 나눔의 기적) 퓨전 오케스트라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다.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및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한 한국인, 건강한 예술인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세계 문화 예술 체험 박람회, 정체성과 소질 찾기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찾기 등을 실시했다. 그중 음악적 소질을 가진 100명의 아동을 선정해 가야금, 해금, 바이올린, 플루트(대금, 소금), 바이올린(난타 특수 악기) 등 5개 악기 팀을 꾸려 전문 음악가의 체계적인 교육을 주 1회 연 30회에 걸쳐 제공한다. 또한 악기별로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 50명을 선발해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한데 어우러진 소나기 퓨전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힘과 동시에 1인 1악기를 배움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 새로운 미래를 위한 힘을 얻게 된다. 소나기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닌 3년 동안 진행되는 교육으로 의미가 깊다. 1년 차에는 아이의 정체성과 음악적 소질 계발에 집중하고, 2년 차에는 꾸준한 음악 교육 제공과 멘토링 교육을 실시하고, 음악캠프와 최종 활동 평가회도 실시한다. 3년 차 때는 실질적인 진로 찾기 교육과 함께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초청 해외 공연을 통해 지역과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의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소나기 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과 위문공연 등을 통해 무대에서 함께 음악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울림을 전하고 있다.



후마네트 서포터즈 박정수씨(37세)
“어르신들
중게 변하는 모습 보고 뿌듯”

“후마네트 운동은 일반인에게 ‘너무 쉬운 스텝 아니야?’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치매나 신체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아요.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르신들의 변화를 느껴요. 동작 시범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시고, 난이도가 있는 동작도 소화해 내시죠. 또 운동하시면서 웃음도 많아지셨고요. 그런 변화를 만날 때마다 도움이 된 거 같아 뿌듯합니다.”



치매 老NO 후마네트 서포터즈

경증치매나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보행기능 및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

경증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외출에 부담을 느끼기 쉽다. 집 안에서만 머무르다 보면 활동량이 줄어들어 근육이 감소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외출해도 낙상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은 경증 치매 및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보행 기능 및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치매 老NO 후마네트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나섰다. 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치매 환자 관련 기관 종사자, 치매 환자 부양가족 총 50명을 모집해 서울아산병원 전성훈 교수의 치매 예방 교육과 후마네트 교육, 팀별 연습 등을 실시했다. 후마네트란 밟지 않는다는 뜻의 일본어 후마나이(踏まない)와 그물을 뜻하는 영어 넷(NET)의 합성어로,



바닥에 사방 50cm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네트를 깔고 스텝, 리듬, 박수, 노래 등을 적용, 네트를 밟지 않고 걷는 운동이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걷는 것과 두뇌활동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치매 예방 운동법으로 손꼽힐 정도로 효과는 상당하다. 특히 신체가 허약한 어르신과 거동 불편 어르신, 경증 치매 어르신의 균형 관련 보행 기능 개선, 뇌와 중추의 미세 신경 자극에 의한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다. 신체가 건강한 어르신과 치매 예방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 효과뿐 아니라 스텝 단계에 따른 성취감과 다수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운동하며 유발되는 웃음으로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다.

현재 후마네트 서포터즈는 강동구 내 요양병원과 경로당 각각 한 곳씩, 강동구 내 데이케어센터 8 곳에 투입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발걸음 단기를 함께하고 있다.



안심(顔心)메이크업

베이비붐 세대 50대 이상 여성들의
미용 치료기법 통한 아름다운 변신

“중년과 폐경을 맞이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하지만 안심메이크업에 참여하면서 외면과 내면을 포함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감도 향상된 것 같아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안심(顔心)메이크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베이비붐 여성들의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은퇴를 앞둔 두려움과 부모 부양, 자녀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갱년기와 폐경으로 인한 우울함이 크게 줄어든 것. 대신 현재의 자신을 마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은은하게 배어 나왔다. 새로운 시간을 활기차게 시작할 힘도 함께 충전된 듯했다.

특별한 ‘안심(顔心)메이크업’은 갱년기 우울감을 느끼는 베이비붐 여성들의 우울감 감소를 위해 얼굴과 마음에 메이크업을 해 보자는 의미로 지난 3월에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안(眼)메이크업’인 미용 치료는 자기 본연의 색을 찾는 퍼스널 컬러, 얼굴을 돋보이게 해줄 메이크업, 자신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링, 손톱 관리와 컬러링을 위한 네일아트 등의 미용 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소홀했던 중년 여성의 외모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심(心)메이크업’은 심리 상담에 집중되어 있다. 정서 지원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인간관계, 일과 역할 등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구성해 전문 상담사와 함께하는 집단 상담으로 진행된다.

안심메이크업은 3월부터 5월까지 50대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한 1기 과정이 진행됐다. 5월 말부터는 새롭게 60대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안심메이크업 2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한 번 만나게 될 아름다운 변신이 기대된다.



스텐바이큐

이주여성과 자녀의 재능 발굴 프로젝트
현직 방송인 강의 통해 꿈 실현 기회 제공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 나른한 교실을 깨우는 세계의 웃음꽃이 가득하다. 기자의 꿈을 열심히 키우는 신에바씨, 쌍둥이 형제와 열정으로 교육에 임하는 수이게바쿨심 씨, 노래와 춤, 연기 모든 장르에 소질을 보이는 아마구치 씨 등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대중문화에 관심 있는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데 모여 춤, 노래, 성우, 글쓰기 등의 수업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고 이를 무대에서 펼치는 ‘스텐바이큐’에 참가해 행복을 나누고 있다. 태어난 고향도,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어느새 가족처럼 서로의 삶과 꿈을 응원하고 있다.

‘스텐바이큐’는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후원하고 (사)문화나눔초콜릿이 주최하는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재능 발굴 프로젝트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인 방송 프로그램의 체험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국과 한국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온라인 지원을 통해 선정된 100명의 참가자는 3월 KBS 견학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간씩 3개월 동안 현직 방송인들이 진행하는 아이돌 댄스반, 글쓰기반(작가), 연기반(성우, 개그), 아나운서반의 수업을 듣고 있다. 오는 7월 7일에는 압구정동 장천아트홀에서 무대의 주인공으로 재능을 펼치며 꿈을 실현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스텐바이큐는 음악치료사와 미술치료사가 진행하는 감정수업도 제공한다.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경험하는 아이 사례와 같이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원치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 세심하게 보듬는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2019년 나눔과꿈 사업신청 안내

- 접수기간 6월 11일(월)~7월 27일(금)
- 접수방법 나눔과꿈 홈페이지 (www.sharinganddream.org) 통해서만 신청가능
- 신청분야
 - 꿈 :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 시도가 의미 있는 사업
 - 나눔 :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진행방식 및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생산성,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사업기간 및 지원기준

구분	지원 금액	사업 기간
단기 사업 (1년)	1억 원 이하	2019.1.1~12.31
장기 사업 (3년)	5억 원 이하	2019.1.1~2021.12.31

- 신청자격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글로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단체 및 기관(비영리사회적기업 포함)
- 문의 02) 6262-3071, 3076
- 나눔과꿈 홈페이지 → 소통공간 → Q&A공간 또는 실시간 상담이용(10~17시 운영)



사랑의열매, 2018 봄 정동야행 행사 참여 나눔을 품고 사랑을 느끼다

따뜻한 봄날 저녁 덕수궁 돌담길 따라 걸으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듯하다. 서울시 중구에서 진행되는 '정동야행(貞洞夜行)' 행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참여해 일반 시민들에게 나눔문화를 전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정동야행은 근대 교육과 외교의 중심인 정동에서 '세계를 품고 정동을 누비다'라는 테마로 진행됐다.

공동모금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열매 회원 1층 전역에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해 나눔문화를 홍보했다.

가족 단위 참여객 뿐만 아니라 직장인, 학생 등 남녀노소 다양한 시민이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그중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하늘(13)이는 "나눔체험관에서 휠체어를 처음 타 보았는데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며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보는 '펠러비즈'도 재밌었다"고 말했다. 나눔, 행복, 사랑, 희망 등의 글귀를 즉석에서 그림과 함께 표현하는 '캘리그래피'와 천일염에 파스텔 가루를 입혀 만든 '색(色)다른 소금', 지인에게 마음을 담은 엽서와 초코파이를 전하는 '나눔우편함'도 운영됐다. 🍌

착한기업_LH한국토지주택공사

글 박미진 사진 LH,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318 Happy Zone 김해 사과나무,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소외된 이웃 품어주는 든든한 보금자리

주택난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집 마련에 앞장서 온 LH. 이들의 사회공헌 발자취도 집과 연관이 깊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꿈이 무럭무럭 자라는 집, 소외계층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게 돕고 있는 것. 그리고 낯선 사회로 나서는 데 든든한 지원이 되는 역할까지, 보금자리로서의 집 그 이상의 가치를 사회와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 행복한 밥상

전국 임대단지 36곳에 행복꿈터 운영
방학 때는 점심과 활동 프로그램 제공

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아동 중에는 맞벌이하는 부모를 가진 경우가 많다. 학교 후 집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숙제하는 등 홀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LH는 전국 임대 단지에 거주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인 행복꿈터

지역아동센터가 대표적인 예다. LH는 임대단지 아파트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해마다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인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한다. 그 안에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센터의 돌봄 덕분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에 안심을 느끼며 생업에 전념하게 됐고, 아이도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LH와 함께하는 행복한 밥상은 학교의 돌봄이 없는 방학 기간 아이들의 점심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지원사업이다. 2005년부터 LH나눔봉사단이 주축이 되어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 임대주택의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가정 아이를 위해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리고 있다. 성장을 고려해 차린 균형 잡힌 밥상에는 사랑도 듬뿍 들어 있다. 그리고 풍선아트나 비즈공예, 탁구, 숲 체험, 영화 관람 등의 배움과 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행복한 밥상의 맛있는 식사를 함께한 아이들은 총 4만 1,825명에 이른다.



멘토와 꼬마친구

저소득가정 아동 대상 학습과 생활 지도
대학생 포함한 멘토링 전국 네트워크화

멘토와 꼬마친구는 아이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LH의 아동 멘토링 활동이다. 대학생 청년 봉사자가 멘토가 되어 매주 저소득가정 거주 아이들을 방문해 함께 공부하고 체험 학습을 진행한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부족한 학습 능력은 물론

자존감도 키우게 된다. 아이들은 함께 어울리며 정을 나누면서 공감 능력과 사회 능력도 기르는 등의 정서적 안정까지 지원받는다.

멘토와 꼬마친구는 2008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해 이듬해 서울, 경기, 제주 3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현재는 전국 단위로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LH는 원활한 멘토링 활동을 위해 임대주택 아동멘토링 활동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는 모바일 밴드 활동을 통해 대학생 멘토들이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과 정기모임 등의 지원을 통해 진정한 아동멘토링으로 발전하고 있다.



LH소셜벤처 창업 지원

청년·대학생들 '거위의 꿈' 펼칠 수 있게
자금·교육·컨설팅까지 원스톱 창업 지원

대전과 대구에 위치한 LH 사옥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창업에 대한 열정이 넘쳐난다는 것. LH가 운영 중인 원스톱 창업 지원 인큐베이터 '창업 샵터'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창업 아이템에도 불구하고 자금이나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이다. 기존의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형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오던 것을 2015년부터 창업의 범위를 더 넓히고, 만3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도 지원이 가능한 청년·대학생 소셜벤처의 개념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선정된 팀에게는 창업 자금 지원과 클라우드 펀딩, 단계별 지원금 지급, 창업 교육, 현장 컨설팅까지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지원을 통해 탄생한 창업 기업은 2017년까지 총 41 팀이다. 2018년부터는 기존 창업 지원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설맞이 취약계층 물품나눔 및 자립지원

경남 도내 취약계층 221가구에 생필품
지역 내 자활센터 생산품으로 상품 구성

반가운 새해 인사와 함께 고마운 선물 그리고 두 사람이 꼭 권 손을 통해 느껴지는 사랑의 온기.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LH와 경남 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설맞이 취약계층 물품나눔 및 자립지원' 현장의 따스한 풍경이다. LH는 경남 지역 내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나기를 위해 2,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기금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즙부터, 누룽지, 강정, 참기름세트, EM비누세트 등 1만~2만 원대 먹거리와 생필품으로 구성된 선물박스를 마련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남도 내 17개 시군의 저소득가정 221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물품 나눔은 거제·김해·마산·진해·함안·합천 지역 등 지역 내 자활센터의 생산품으로 선물을 꾸려 판로 개척 등의 어려움이 있는 자활사업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상생의 나눔이었다.

이 외에도 도내 13개 지역자활센터에 속한 847명의 이웃에게 온누리상품권 지원과 도내 19개 지역자활센터에 굶감 등 4,500만 원 상당의 현물도 제공되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체험 캠프

경남 청소년들 대상 특별한 1박2일 캠프
강원 도내 소외계층에도 경기 관람 지원

경남 지역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1318 Happy Zone 김해 사과나무와 진해 행복지대의 40명의 학생은 2월에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로 LH와 경남 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체험 캠프'를 다녀온 것. 아이들은 강릉하키센터의 눈부신 빙상장에서 뜨겁게 펼쳐졌던 캐나다와 러시아가 맞붙은 여자 아이스하키 준결승전을 관람했다. 아이스하키 자체를 처음 본다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금세 선수들이 쏟아내는 스피드와 파워, 그리고 응원석을 가득 메운 응원의 열기에 푹 빠져들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니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아이부터, 많은 외국인을 처음 보게 되어 신기한 아이,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아이, 자원봉사자들의 값진 땀방울의 의미를 느낀 아이까지 역사적인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아이들은 이번 여행에서 지역 내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미술관과 박물관 등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LH는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강원도 내 장애인·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와 저소득 문화 소외자를 위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경기관람 사업을 진행했다. 같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세계적인 행사지만 입장권이 부담되거나, 몸이 불편해서 경기 관람이 쉽지 않아 아쉬움을 느끼는 도민들도 많았던 것. 이 사업을 통해 컬링, 아이스하키, 프리스타일스키, 스노보드, 스키점프 등의 경기에 도내 25개 기관 1,077명 회원들의 단체 경기 관람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경남 저소득층 65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도내 지역자활센터에 일감 맡겨 상생도

일부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집수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보니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절기가 되면 주거 환경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경남 공동모금회와 LH는 경남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겨울 경남 지역 저소득 가구의 안전하고 따뜻한 주거 공간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지정기탁 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LH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3개월 동안 서부경남 지역 57가구를 대상으로 총 1억 5,000만 원, 가구별로 263만 원을 지원했다. LH 경남지역본부도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창원시와 김해시의 8개 가구에 3,000만 원, 가구별로 375만 원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겨우살이와 직결되는 보일러 공사와 난방, 단열, 창호, 지붕, 비 가림 공사 등을 비롯해 전기 공사, 방 공사, 목공사 등의 중요한 보수 공사를 통해 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장판과 도배, 싱크대, 욕실, 화장실 등의 보수로 주민들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경남권의 지역자활센터가 지자체별로 시공을 담당해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과 기술 시공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 아름다운 나눔이었다. ❀

어르신 여생의 친구 같은 동반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인간의 숙원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다. 혼자 생활하면서 자주 끼니를 거른다. TV가 유일한 친구다. 지역사회가 건강도 관리해 주고 친구가 되어 즐거운 노년의 삶을 살도록 돕는 통합노인건강돌봄 사업이 있다.



지역사회 노인 건강돌봄 지원사업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399만 9,000가구로 전체 20.5%를 차지한다. 이 중 어르신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33.4%에 달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자칫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영양 지원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보건의료복지서비스 사업을 공모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 주도형 노인 건강돌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대전광역시에 있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민들레)이다.

대전시 대덕구에서 홀로 사는 김경자(가명·82) 할머니는 뇌척수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욕실에서 넘어졌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다 보니 다리 근육이 줄어 균형을 잡지 못한 것이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도움이 절실했다. 주 5일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하루 3시간 돌봐드리고 있지만 주말이나 서비스 사각 시간에는 오롯이 김 할머니 혼자 생활해야 했다. 이에 민들레는 민들레와 지역의 병원 의료진과 복지사가 김 할머니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핫라인을 구성해 토탈케어서비스를 제공했다. 김 할머니는 퇴원 후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치료중재서비스',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주는 '영양반찬서비스' '영양보조제(뉴케어) 지원'을 받았다. 민혜란 민들레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에는 김 할머니처럼 기본적인 노인 돌봄의 한계를 넘는 통합 돌봄 및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수혜자 중심... 어르신 아프면 집으로 왕진

민들레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지역사회의 의료진과 보건인력, 복지기관이 연계해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3년차를 맞는 이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다. 어르신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집으로 와서 생활맞춤형 처방을 하고, 사회복지사, 상담사, 치위생사 등도 방문하여 종합적으로 돌봄을 수행한다. 사업 1차년에는 지역을 사업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해 구조화했다. 양한방 의사들이 방문해 진료하는 재택의료 개념으로 접근했고 또한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및 교육을 하고 있다. 영양사의 자문을 받은 건강 반찬을 주 2회 방문해 드리고 있다. 시니어 건강리더 양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이웃의 건강도 살피는 노인 당사자 그룹을 조직하기도 했다.



2차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보건·의료·복지 포괄서비스 지원에 집중하여 건강상태에 따른 개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진행했다. 3차년인 올해는 어르신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건강은 건강한 관계'라는 것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자조모임 및 건강반양성에 힘쓰고 있다.

마을주민 중 건강리더 양성, 1대1 연결

건강리더 양성 사업은 '지역사회가 의사'라는 개념이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주민을 일정 기간 교육해 1대1로 어르신을 방문하면서 어르신들 욕구를 찾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의 핵심 공간이 병원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것을 조금씩 체험해 가고 있다.

지난 5월 17일에는 지역사회 노인건강 돌봄사업에 대한 성과와 사업 이후 지속성을 위해 '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노인건강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했다. 건강을 위해 의료 관계자와 사회복지 관계자가 방문하기를 원하는 등 통합적인 돌봄에 대한 욕구를 드러냈다. 노인건강돌봄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모두가 힘을 쏟아 마음을 모을 때 오래 사는 게 축복인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풀뿌리 케어가 향후 중앙정부 정책 모델로”

민혜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어르신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민간 차원에서의 ‘커뮤니티 케어’는 향후 정부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적극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도가 강화되고 지원 체계가 많아져도 모든 이의 삶을 충족시키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풀뿌리 민간조직들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들레도 지역사회 돌봄이 마을 안에서 확산되고 참여주민이 많아 진정한 ‘커뮤니티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뜻이 맞는 사람이 모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하고 시행착오도 많지만 어르신을 중심으로 지역이 건강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는 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착한일터_한국항공우주산업 나눔봉사단

글 홍정기 사진 양수열

대표가 나눔봉사단장 구석구석 맞춤형 출동

임직원 2,700여 명이 참여해 2016년 3월 창립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나눔봉사단(KAI 나눔봉사단). 주말이면 그들은 지역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는다. 이제는 일상이 됐다는 나눔을 통해 회사 임직원들은 평범한 일상이 주는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어려운 이웃 돕고 지역 인재도 키우고

1999년 설립 이후 지금, 세계 초일류 항공우주 기업으로 발돋움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은 관련 분야 볼모지였던 우리나라에 KT-1 기본훈련기를 시작으로 T-50 고등훈련기, FA-50 경전투기, 수리온 기동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 개발을 통해 자주국방과 항공우주기술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또한 '대한민국 영공은 KAI가 만든 전투기가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소형민수/무장헬기(LCH/LAH)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2030년 매출 20조 원을 달성해 세계 5위 항공우주 체계 종합 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것이 바로 KAI 나눔봉사단이다. 김조원 대표이사가 봉사단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전사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김조원 대표이사는 "단순한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해 사회로부터 지속가능 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는 사회봉사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를 키우고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과학캠프·항공소년단 운영... 재능기부 활동도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지난 2012년 대한민국 과학 영재 육성을 위해 항공교육 전용 예비에이션 센터를 건립해 회사가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명품 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소년단 운영을 통해 항공에 꿈을 가진 청소년 인재를 후원함은 물론 2016년에는 KAI 나눔봉사단을 창단하고 사회복지기금을 별도 책정해



KAI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로 KAI가 만들어 가는 모든 가치창출을 KAI만의 소득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므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공헌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지원사업과 사회복지, 상생협력,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회사 지원 성금, 항공우주박물관 입장 수익금, 라운지 수익금, 50개 협력사 기탁 성금, 봉사 기탁 성금 등에서 나온 17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사천 관내 불우이웃 정기 후원, 고객 지원 봉사, 국의 고객 봉사, 전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 운영, 순수 봉사, 재활·자활·자립 봉사 지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지역사회 연계 봉사, 복지단체 후원, 자연재해 성금 기탁 등에 사용했다.

이러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나눔 봉사 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KAI 나눔봉사단이다. 임직원 322명이 참여하는 KAI 나눔봉사단은 ▲아동학습지도, 해비타트, 통역, 의료 등을 담당하는 재능기부 부문(79명) ▲김장 담그기, 연탄 배달, 농촌 일손 돕기 등을 진행하는 봉사 지원 부문(193명) ▲결연 후원, 장학 지원, 불우 아동 1:1 멘토링 등을 책임지는 장학사업 부문(50명)으로 구성됐다. 일과가 끝난 평일 저녁과 주말을 이용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는 KAI 나눔봉사단은 어떤 대기업보다 활발한 봉사활동을 벌이는데, 한 달에 하루 쉬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봉사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지역 분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단원들을 만난 그분들이 보여주는 미소와 따뜻한 손길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돌아오는 길에 ‘언제 또 오느냐’고 건네는 인사가 계속 뇌리에 남아요.” 휴일도 없이 나눔활동을 다니는 한 봉사단원의 이야기다.

경남 서부권에 많은 봉사 관련 단체가 있지만 KAI 나눔봉사단이 지역사회에서 큰 환영을 받는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아서다. KAI 나눔봉사단은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곳에 무엇이 필요하지 먼저 파악하고 지원한다. 오래 정해진 물품을 지원하고 명목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품이나 활동 내역 등을 받은 후 그에 맞는 단원들을 현장으로 보낸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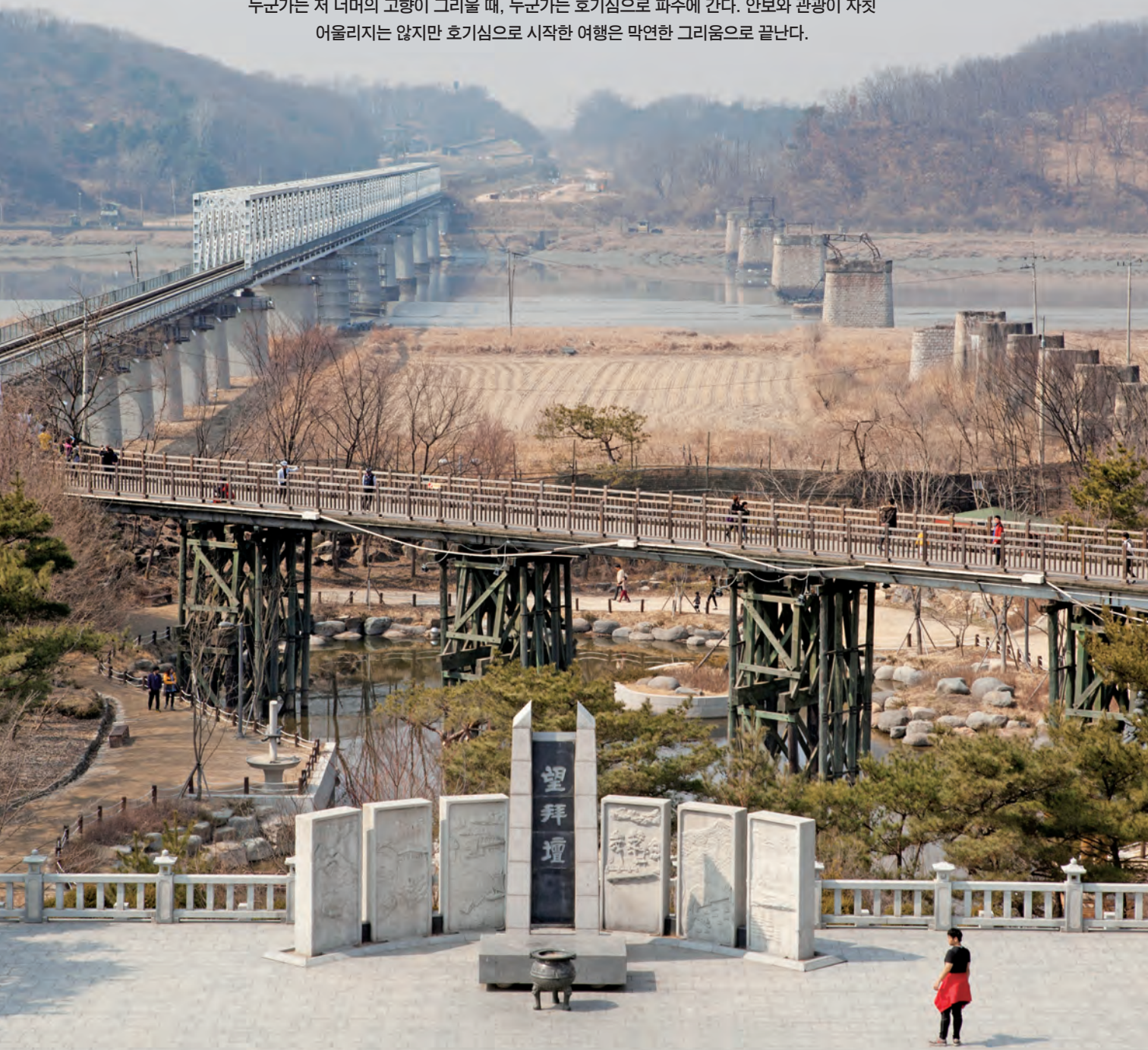
올해 KAI 나눔봉사단이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활동 중 하나가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다.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다슬제과빵’(사단법인 사천시장애인부모회) 공장을 후원하는 것으로, 이 공장은 직업 훈련 및 직무 개발, 판매,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제공해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설립됐다. KAI 나눔봉사단은 이를 통해 단순 기부가 아닌 자활과 재활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와 더불어 ‘사랑의 칼국수&빵나눔’도 KAI 나눔봉사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봉사단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의 칼국수&빵나눔’은 매월 1회 540인분의 칼국수와 260개의 파운드 빵을 만들어 사천 소재 노인 요양원과 아동센터에 제공한다. 봉사단 관계자는 “부모님 손에 끌려 온 중고생 자녀들도 매우 만족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인상도 쓰고 귀찮아 하지만 가족이 함께 국수와 빵을 만들면서 점점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한 번 온 사람은 꼭 다시 찾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소개했다. 높은 호응에 힘입어 KAI 나눔봉사단은 ‘사랑의 칼국수&빵나눔’을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그 존엄성의 가치는 동일하다. 푸르고 아름다운 수풀처럼 KAI 나눔봉사단은 더불어 살아가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 🍀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_경기 파주

글 사진 조혜원(여행작가)

통일이여 어서 오라[♪] 반가운 북녘하늘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분단국가의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았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멀고도 가까운 그곳이 궁금해졌다. 누군가는 저 너머의 고향이 그리울 때,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파주에 간다. 안보와 관광이 자칫 어울리지는 않지만 호기심으로 시작한 여행은 막연한 그리움으로 끝난다.





1 DMZ안보관광투어의 첫 관문은 검문이다. 헌병이 버스에 올라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다.
2 도라산역은 통일이 되면 경의선이 연결될 첫 번째 역이다.

안보를 관광하다 **DMZ안보관광투어**

임진각평화누리공원은 누구나,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산 전망대는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기 때문에 DMZ 안보관광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평화누리공원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하거나 코레일 'DMZ 통일 열차' 상품을 예약하면 된다. 내국인이라면 신분증, 외국인은 여권이 필수. 도보 코스와 셔틀 승강기 코스로 나뉘는데 이는 제3땅굴에서의 이동 방법의 차이이다.

티켓을 끊고 출발 시각에 맞춰 버스에 탑승하면 어느 단체 관광버스와 다르지 않지만, 곧 검문소에서 헌병이 버스에 올라 무표정한 얼굴로 신분증 검사와 인원 체크를 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괜히 긴장된다.

대륙으로 가는 첫 번째 역 **경의선 도라산역**

첫 번째 코스는 2002년 완공된 경의선 도라산역이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유일한 역이자 통일이 된다면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될 곳이다. 어느 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처음 지어진 멀끔한 모습 그대로다. 역사 곳곳에 통일을 염원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언젠가 도라산역에서 출발해 개성, 평양, 신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기차를 타는 상상을 하며 플랫폼을 둘러본다.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도라산 전망대**

다음 코스는 도라산 전망대다. 도라산 전망대는 북한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서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군부대가 관리하는 전망대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공단도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망원경으로 보면 개성 송학산, 김일성 동산, 개성공단 지역까지도 볼 수 있다. 노란색 선 안에서만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아무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카메라를 들고 노란선을 한발만 넘어서도 어디선가 군인이 다가와 카메라 렌즈를 막아선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은 우리가 슬하게 보아 온 산의 능선과 다르지 않았다. 한발만 내디디면 될 것 같은데 갈 수 없는 땅이라니 알 수 없는 애뜻함이 느껴진다.

분단국가라는 현실 **제3땅굴**

세 번째 코스는 제3땅굴이다. 북한이 서울을 기습 침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높이 2m, 폭 2m, 길이 1,635m의 둥근 아치형 땅굴로, 1시간에 3만 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규모다.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 중 가장 크다. 땅굴에 입장하기 전 DMZ 영상관에서 10분 정도의 6·25전쟁과 DMZ 자연 생태계에 관한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관람 후 비무장지대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는 곳이 있는데



1

1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임진각평화누리공원을 걷고 있다.
 2 임진각평화누리공원에서 한 관광객이 망원경으로 북녘 땅을 보고 있다.
 3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이 DMZ안보관광이다. 제3땅굴을 찾은 외국인인 안보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4 도라산 전망대에서는 북쪽을 향해 사진을 찍을 수 없다. 멀리서 바라만 볼 뿐.



3

4

지구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탄소포인트제 녹색습관이 기부버릇으로

지구도 살리고 기부를 통해 이웃도 살리는 유용한 제도가 있다. 전기나 수도, 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는 탄소포인트제다. 누구나 생활 속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절약하면 각종 혜택... 지자체마다 시행

‘지구 온난화’ 현상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더욱 자주 듣게 되는 환경문제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익숙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폭염 등 각종 이상기후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북극곰의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해수면은 매년 1cm씩 상승하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온실기체)가 발생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환경부가 산업 부문에 치중해 온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정 및 상업시설까지 확대해 실시하고자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범 운영되다 2009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국민이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환경도 지키고 기부도 실천하는 경기도 수원시의 탄소포인트 기부가 눈에 띈다. 수원시는 시민들과 뜻을 모아 환경도 지키고 어려운 이웃도 지키는 건강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탄소포인트 기부에 동참해 많은 시민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지만 수원시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꾸준히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바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부’를 선택한 수원 시민들의 인센티브를 모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진정한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2,000여 가구, 인센티브 포인트 기부 동참

수원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2014년 1,074만 3,540원을 시작으로 매년 인센티브 기부를 이어왔으며 2017년에는 1,912만 4,000원의 기부금이 전달됐다. 수원시민의 기부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탄소포인트제로 모인 성금은



경기 공동모금회를 통해 수원시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로 전달되고 있다.

수원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기부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환경도 지키고, 더불어 기부까지 실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작은 나눔의 마음들이 모여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는 현재 2만 9,690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웃을 위해 기부를 희망한 가구는 2,037가구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적극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녹색환경을 위해 온실가스 절감의식을 고취시키고, 기후변화대응 관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탄소포인트 기부를 통해서 지역의 나눔문화를 이끌고 동시에 널리 알려져 기부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원시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부가 좋은 모델로 생활 속의 작은 절약 실천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적인 도움인 '기부'의 형태로 탈바꿈되었다. 절약하는 녹색습관이 몸에 배이고 그에 따른 기부실천까지, 더불어 상생하는 건강한 수원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

우리 생활 속의 녹색습관을 위해 여름엔 26℃ 이상, 겨울엔 20℃ 이하로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 두자. 또한 샤워 시간은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하는 등 일상 속에서의 녹색습관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 이웃을 위한 인센티브는 계속 쌓여가게 된다.

참여방법도 간단하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부 외에도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등 가구에서 필요한 종류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당장 기부 인센티브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리 환경을 위한 탄소포인트제에 전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모아질 바란다.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cpoint.or.kr

사랑의온도 105도 달성... 최고액 경신 “풀뿌리 개인기부 잘 익어갑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7개 시도 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최우수지회다. 경북 공동모금회가 설립된 이래 최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 모금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금액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눔이 일상인 된 경북도민의 풀뿌리 개인기부 문화는 경북 공동모금회의 자랑이다. 1등 지회의 1등 비결이 궁금해 찾아갔다.

경상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넓은 곳이다. 두세 군데 시군만 다녀도 하루가 꼬박 걸릴 정도다. 북쪽 울진군에서 남쪽 청도군까지 23개 시군이 각자 지역적으로 독특한 개성이 있지만 ‘나눔’ 앞에서 하나로 뽄뽄 뭉치는 나눔특별도다.

경북 23개 시군, 나눔 앞에서는 뽄뽄 뭉치는 나눔특별도

경상북도는 농촌 지역 많아 전체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노인의 비율이 높은 건 비단 경북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2030년이 되면 인구절벽 현상을 겪을 곳이 15개 지역이나 된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도 지자체의 자립도가 낮은 곳이 많다. 경주 같은 관광도시나 포항·구미처럼 공업지역이 아니고선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에 있어서는 타시도와 견주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 운동인 ‘희망2018나눔캠페인’에서 사랑의온도를 105도나 달성했다. 경북도민 1인당 기부액도 지난해보다 112% 증가했고, 모금액도 215억 2,5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표가 ‘포항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것이라 더 의미가 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재해로 인한 기부금은 모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연말연시 모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신혜영 경북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지진이 연말연시 모금이 시작되기 직전인 11월에 발생해 모든 역량이 지진피해 복구에 집중됐다”며 “모두가 예년보다 모금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연말이 되자 경북도민이 한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신 사무처장은 “이것이 경북의 힘이다”라고 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경북도민 모두 나눔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 사무처장은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지역이라 나눔을 드러내지 않고 실천을 하는데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기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며 “내가 도우면 남도 나를 도울 것’이라는 나눔 품앗이 문화가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기부는 금액적으로 비중이 크긴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그에 반해 개인기부는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안동장씨 총렬공파 24대손.
경복 모금회 2개월 신입.
모금사업팀
장성익 대리

결혼하기,
배려하는 사람 되기,
모금 목표 달성하기.
모금사업팀
이승환 대리

열정적인 모습,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공동모금회에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금사업팀
김영민 주임

1인본은 하지!
배분사업팀
김보규 주임

경복 곳곳에 사랑의열매만의
'따뜻한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자.
배분사업팀
김종원 팀장

많이 배워서
복권마스터가
되자!
배분사업팀
정지석 주임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모금사업팀
김원현 대리

경북1군민 1나눔,
실현을 위해
걸어나가겠습니다.
모금사업팀
양승열 주임

배분팀 업무
제대로 하기!
배분사업팀
김미주 주임

'역지사지' 항상
기부자·배분대상의
마음과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배분사업팀
함초를 대리

'소확행' 거창하진 않지만
일상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배분사업팀
김명현 대리



2018년 사고치지 않는
경영관리팀이 되었습니다.
경영관리팀
이현재 주임

건강하고
친밀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
경영관리팀
이정우 팀장

2018년
열정·끈기로
해피 바이러스
만들겠습니다.
신혜영 사무처장

나눔으로 행복한 경북

경복 사랑의열매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배려와 소통의 한 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금사업팀
김현정 팀장



올 한 해
잘 익은 열매가
되어 경북과 사랑의
열매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금사업팀
김소영 주임

2018년은 더욱 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금사업팀
김유진 주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풀뿌리 개인기부가 잘 정착한 경북 공동모금회를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나눔봉사단은 ‘움직이는 경북지회’... 착한가게 대거 발굴



경북 공동모금회가 최우수지회로 선정

될 수 있었던 힘은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눔봉사단 역할이 크다. 이승환 대리는 “나눔봉사단은 지역의 나눔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며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한다”며 “나눔봉사단은 ‘움직이는 경북지회’라고 할 수 있다”고 엄지를 치켜들었다. 이들을 통해 발굴된 착한가게가 2017년 한 해에만 677곳이나 된다. 하루에 2곳을 가입시킨 것이다.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착한가게가 모두 2,570곳에 달한다. 지난해 아너 소사이어티도 120%나 달성했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이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일터 캠페인에도 1,700여 명의 참여를 유도해 풀뿌리 개인기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최우수 나눔봉사단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하다.

경북 공동모금회는 지정기탁보다 일반기탁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긴급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현금기부 비율도 현물에 비해 9:1 정도로 월등히 높다. 이처럼 일반기탁이나 현금기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금 배분에 있어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곳에 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주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북 공동모금회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1~2주 내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히 처리한다. 함조롬 배분사업팀 대리는 “경북 공동모금회의 경우 긴급 지원 예산이 40억 원으로 전국 지회 중 1위”라며 “지난해 긴급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1,654건, 의료비 1,624건, 화재복구비 97건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지역 전문가 프로젝트 시행... “나눔문화의 성지로 만들겠다”

경북 공동모금회는 올해가 더 기대된다. 직원 1명당 2~3개 시군을 전담으로 해 소통을 하는 ‘지역 전문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시군담당자가 맡은 지역을 문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개인기부자를 발굴하고 나눔봉사단과 협력해 다양한 나눔문화를 전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혜영 사무처장은 “지역을 잘 알고 주민들과 직접 대면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연말 나눔의 봄을 일으킨 경북만의 풀뿌리 기부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사무처장은 “앞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항상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경북 모금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을 헌신으로 섬기는 경북 공동모금회라면 나눔문화의 성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어려울 때 더 많이 나누려 하는 경북 주민들에게 많은 것 배워”

신혜영 경북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본이 고령이다. 고령군에서는 ‘고령의 딸’로 통한다. 신 사무처장은 “이제 와서 얘기지만 고령이 경북에 있다는 사실을 발령받고 와서 처음 알았다”며 웃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북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통역을 대동해야 대화가 가능했던 사투리도 이제는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다.

신 사무처장은 “경북 사람들은 강하고 보수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직접 주민들을 만나니 순수하고 예의 바르며 정말 마음 따뜻한 분들이었다”며 “어려울 때 더 많이 나누려고 하는 경북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경북의 딸’ 신 처장 발로 뛰며

신 사무처장은 올해 공동모금회에서 근무한 지 16년 차다. 주로 서울과 경기권에서만 근무를 해 경북 지역 사정에 그리 밝지 못했지만 신 사무처장에게 핸디캡은 아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 경북 지역 23개 시도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경북의 딸’을 외치면서 지역 인사들과 관계를 돈독히 해나갔다.

신 사무처장의 첫인상은 호감형이다. 소탈하고 활발한 성격에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이 매력이다. 대화를 이끌어 갈 때 마음을 잡아끄는 마력이 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신 사무처장의 나눔에 대한 진정성이 경북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아닐까.

그녀는 지난해 최우수지회가 된 경북 공동모금회를 다시 한 번 정상으로 이끌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무척 부담스럽긴 하다. 하지만 지난해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뤄낸 1위이기 때문에 경북의 나눔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할 수 있다’는 신 사무처장의 긍정마인드가 나눔의 메카 경북의 기적을 가능케 할 것이다.

모금단체의 투명성 시비 ‘임팩트 전략’으로 맞선다

비영리단체(NPO) 숫자만 160만 개가 넘는 미국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이 많다. 비영리를 위한 기부·모금 관련 정책 의견도 내고, 시민들에게 비영리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는 캠페인도 벌이며, 비영리 투명성을 평가하기도 한다. 한국의 비영리 중간리더들과 함께 이곳들을 방문해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중요한 흐름은 ‘반성’과 ‘전환’이었다.

간접비 사용에 대한 오해 바로잡고 아웃풋에 초점

인디펜던트섹터, 재단센터, 가이드스타, BBB와이즈기빙 얼라이언스, 채리티 내비게이터 등은 미국에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기관들이다. 이곳에선 기부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 화두다. 우선 지금까지 기부자들하고 소통해 온 메시지에 대한 ‘반성’이 컸다. 그 결과로 나온 게 ‘오버헤드 미스(Overhead Myth·간접비를 둘러싼 근거 없는 신화)’ 캠페인으로, 비영리단체 간접비(인건비와 운영비)를 둘러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포스터엔 비영리단체 직원의 얼굴과 함께 ‘내가 오버헤드다(I’m Overhead)’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쓰여 있다. SNS에서 퍼 나를 수 있도록 한 편지도 있는데, 내용은 이렇다.

“오버헤드(overhead)라고 불리는 간접비만으로 비영리를 평가하지 말자. 그 결과 비영리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졌다. 비영리는 오버헤드에 돈을 더 써야 한다. 그 돈은 비영리가 원래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돕는다.” (기업 사회공헌이든 정부 위탁사업이든 모든 기부금이 오롯이 직접사업에만 쓰이기를 원하는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한쪽에선 끊임없이 간접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한편, 다른 쪽에선 ‘임팩트’로 화두를 전환하고 있다. 인디펜던트섹터 다니엘 카디날리(Daniel Cardinali) 대표는 “지난 30년 넘게 미국에선 빈곤층 몇 명에게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 줬는지에 관한 아웃풋(output) 중심으로만 말해왔다”며 “우리는 이제 재무적인 이야기를 넘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임팩트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 유나이티드웨이, 배분 따른 분야별 목표치 설정

‘임팩트’ 전략은 사회복지와 비영리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등 공익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유나이티드웨이의 임팩트 전략을 취재하면서, 지금까지 대상과 주제·이슈별 배분에 포커싱을 한 공동모금회에서도 임팩트 전략을 벤치마킹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웨이(United Way)는 130년 역사를 지닌 미국 최대의 모금·배분단체로서, 모금액이 52억 7,300만 달러로 우리로 치면 5조 9,200억 원이 넘는다. 특히 모금회와 마찬가지로 모금액 75% 이상이 직장 내 캠페인을 통해 조성될 정도로 기업 파트너십이 많다.

유나이티드 웨이는 2002년 브라이언 갤러거 회장이 부임하면서 ‘왜 매년 반복되는 모금활동이 사회문제 해결과 성과지표 제시로 연결되지 않는지’에 관한 지속적인 물음에 주목했다. 그 결과 소득 양극화와 빈곤문제 심화 등 미국 사회의 이슈가 복잡해져서 사회복지 기관 하나하나를 지원하는 기존의 배분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음을 파악하고, 2003년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모델을 도입했다. 유나이티드 웨이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미션을 크게 3가지인 교육(Education), 소득보장(Income Stability), 보건 및 건강(Health) 영역 등으로 잡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법론’이다. 하나는 목표수치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 어젠다의 경우, 미국 고등학생의 평균 졸업률은 70% 정도에 불과하며 유색인종이 상대적으로 많은 텍사스 같은 남부 지역은 50%가 채 되지 않는다. 유나이티드 웨이는 미국의 고등학생 졸업률을 2018년까지 87%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단순 배분도 좋지만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도 신경을

두 번째는 각각의 목표별 세부계획과 측정지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졸업률을 올리기 위해 ▲학령 이전 아동의 학습 준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읽기 능력 향상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수학(algebra) 능력 향상 등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구체적 측정지표를 마련한다. 유나이티드 웨이 관계자는 “34곳의 지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지표 개발에만 1년 정도 걸렸다”며 “꿈이나 진로에 관한 사업 등 측정하기 어려운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는 행동지표(예를 들면 진학률이나 취업률 등)를 만들어 이를 측정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컬렉티브 임팩트’ 전략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교육청, 학교, 아동복지기관, 학부모, 아동복지에 관심 있는 기업 및 기부자, 자원봉사자, 언론 등이 함께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모금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목표 숫자와 세부 측정지표,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3가지 엔진이야말로, 유나이티드 웨이의 임팩트 전략을 실행력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물론 이 같은 실험은 지금 초창기로 계속 실행과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자. 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의 배분연구자료(2014)에 따르면, 모금회가 주도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임팩트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획사업기금은 2009년 전체 배분액의 26.8%에서 2013년 10.7%로 현저히 감소했다. 기획사업 프로그램들도 기초생활·생계·주거, 보호·양육, 환경개선 영역이 높아 사회문제의 선도적 해결보다는 정부 보완적 성격이 중심임을 알 수 있다. 기업과 고액후원자들의 지정기탁을 개별 단위사업에 배분하는 대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유도해 보면 어떨까. 모금회의 ‘임팩트’ 엔진이 커지기를 기대해 본다. ❀

하늘나라 어머니의 이름으로 넉마주이의 행복한 기부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넉마주이 이상일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남을 돕는 데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지요. 저는 교도소에서 33년 8개월 3일 근무한 교도관입니다. 2003년 정년퇴직하고 나서부터 고물을 주워왔으니 벌써 15년이 됐네요.

전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27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 기록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넉마주이를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없어 버려지는 쓰레기지만 이것을 모아 팔면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되거든요.

하루종일 리어가 끌고 다니며 폐지와 고물을 주워 팔면 5,000~1만 원 정도 모여요. 고물상이 쉬는 일요일만 빼고 6일을 다닙니다. 한 달에 25일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모은 돈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고 있어요. 공동모금회에도 5년 전부터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지난 4월 중순에도 기부하고 왔습니다.

처음엔 무명으로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우유통에 돈을 담아 보내는 게 미안스럽기도 해서 지금까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이름을 밝힌 이유는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으로 나눔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눔리더는 고인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우유통 기부가 이슈가 됐는데, 큰 이유는 없어요.

돼지저금통도 돈 주고 사야 하잖아요. 우유통은 입구가 넓어 동전도 들어가고 재활용도 할 수 있어 선택한 것뿐입니다. 제가 나눔을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가난했고 배고파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자식을 키우셨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내도 전쟁통에 부모님 잃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배고파 본 사람은 알아요. 나눔을 해야 하는 이유를요. 때문에 아내도 고물을 줍는데 더 적극적입니다. 우리 부부는 나눔에 있어서 한마음입니다. 40년 전부터 아동보호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단체, 소아암단체 등에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0일 동안 점심을 금식해 모은 돈을 자연재해를 입어 고통받는 곳에 보냈습니다. 올해도 100일 점심 금식 성금을 또 해볼 생각입니다.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돕는 것보다 내 씹씹이를 줄여 남을 돕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플 때도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인 것 같아요.

넉마주이 기부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기력이 달려 넉마주이를 못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교도관으로 근무할 때 받은 야근 수당을 따로 모아 놓았는데 그것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나눔리더에 가입을 했던군요. 감사하죠. 나누면 행복하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



서울



2018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개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5월 17일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 대강당에서 '2018년도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 50여 명의 나눔 명사인 아너 회원들이 참석해 신규 회원 소개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현황, 사업현황 보고, 아너 클럽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누적 회원은 236명으로 전국 최다이며 전국 누적 회원은 1,852명이다.



장충포럼,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장충포럼(대표 송석구)은 지난 5월 14일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장충포럼은 남산 일대 인근 기관 및 단체, 기업체 간의 상호협력과 친목도모,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2001년 2월에 발족했으며 중구 저소득시민지원 사업으로 2004년부터 매년 1,000만 원 이상 서울 공동모금회에 기탁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강원



2018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 총회 열어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만우)는 지난 4월 25일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는 2018년 활동 계획 및 향후 클럽 발전을 위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김형우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은 "여러 아너와 강원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나눔봉사단, 긴급지원비 500만 원 기탁

강원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총단장 박선남)은 지난 4월 20~21일 강릉에서 개최된 2018년 강원 나눔봉사단 워크숍에서 모인 500만 원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강원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박선남 총단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 싶어 모금을 진행했다"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유병설 강원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기부금은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주 공동모금회 1억 2,000만 원 상당 봄김치 지원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는 지난 4월 18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무대에서 광주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봄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고 시·구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300명과 유관기관에서 100명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으며 광주 공동모금회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날 담근 봄김치는 광주 지역 소외계층 4,600여 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밀알봉사회, 성금 1,000만 원 전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밀알봉사회(이원천 회장)는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장애인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나눔 바자회에서 장애인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 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2003년 설립된 밀알봉사회는 2,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최대 봉사단체로 2008년부터 매월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억 7,800만 원을 기탁했다.

대구



대구 수성구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발대식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는 지난 4월 24일 대구 수성구청에서 수성구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단장 김순호)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는 김순호 신임 단장이 수성구민들의 한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11만 1,111원의 이웃사랑성금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25명의 나눔봉사단이 수성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대구남구협의회, 착한시민 가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남구협의회(회장 구용호)는 지난 5월 3일 대구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대구시민 소액정기기부캠페인 '착한대구캠페인 착착착착 착한시민' 가입식을 진행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대구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눔 실천을 결심, 대구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착한시민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들이 매월 기부하는 성금은 소외계층 생계비, 청소년 장학금과 교육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대전 현대차 블루핸즈 정비가맹점 11개소 단체 가입

대전 지역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11개 업소는 지난 5월 9일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대전서비스센터에서 '착한정비가맹점'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업소는 현대자동차 원신흥점, 목상점, 봉명점, 탑립점, 용문점, 도마점, 진잠점, 지족점, 괴정점, 둔산동부점, 중리점 총 11개소이다. 이날 가입식에서 블루핸즈 가맹점 관계자는 "직접 기부문화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교직원, 제자사랑 나눔 위해 3억 원 전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5월 10일 제자사랑 나눔캠페인 성금 3억 원을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2003년부터 대전교육청 교직원들이 난치병 아동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으기 시작한 성금으로 현재는 매년 전 교직원이 참여해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해 모금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인 성금은 41억 6,100만 원이며, 대전 공동모금회에서도 추가로 지원, 현재까지 대전 지역 4,300명의 학생에게 지원됐다.



롯데지언츠, 야구 관람석 티켓 2만 석 전달

프로야구단 롯데지언츠는 지난 4월 19일 사직야구장에서 2억 원 상당의 야구 관람석 티켓 2만 석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에 기탁했다. 롯데지언츠는 2013년도부터 부산 지역의 소외계층에 야구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야구 관람권 나눔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관람석 '체리테이블(chari-table)'은 자선을 베푼다는 의미인 'charity'와 야구장 좌석 'table'을 조합해 만든 합성어다.



롯데 손아섭·손승락 선수 '나눔리더' 가입

프로야구단 롯데지언츠 소속 야수 손아섭 선수(4호)와 투수 손승락 선수(5호)가 나란히 부산 공동모금회의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부산 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 18일 진행된 나눔리더 가입식에서 롯데지언츠의 김창락 대표이사과 부산 공동모금회 신정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리더 인증패를 두 선수에게 전달했다. 특히 손승락 선수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며 150세이브 달성 기념으로 쌀 150kg을 기부하는 등 남몰래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다.

세종



세종맘카페, 950만 원 상당 성금 및 성품 전달

세종맘카페는 지난 5월 17일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및 성품 949만 6,680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300만 원 상당의 학용품은 드림스타트를 통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되며 336만 원 상당의 쌀은 푸드뱅크를 통해 결식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전달된 성금 313만 6,680원은 방학 동안 급식 지원이 중단되는 결식아동의 밑반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종 장군면 기업, 630만 원 상당 도서 기증

세종 장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맺은 지역의 기업 대표들이 지난 5월 11일 세종 공동모금회를 통해 630만 원 상당의 도서 570권을 기증했다. 이번 장서 기증에 참여한 기업은 공주아스콘(대표 원진연)·동원유지(대표 박재필)·대성아스콘(대표 조성진)·한밭비료(대표 이건태) 등이다. 이번 도서 기증은 지역의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전국 최초로 착한가게 2,700호점 탄생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전국 최초로 착한가게 2,700개를 돌파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는 지난 5월 14일 울산 중구 함양집 증가점에서 2,700호 울산 착한가게 가입식을 가졌다. 이날 착한가게에 가입한 함양집 증가점(대표 이승준)은 1925년 개업한 100년 전통의 비빔밥 전문점으로,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울산 공동모금회는 2016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착한가게 가입 전국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노사, 1% 행복나눔기금 전달

SK이노베이션은 임직원이 기본급 1%를 모아 조성한 행복나눔기금 21억 5,000만 원을 지난 5월 16일 울산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임직원이 낸 것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매칭그랜트로 출연해 총 46억 원이 조성됐으며, 이 중 21억 5,000만 원은 지난 2월 협력사 68곳에 상생기금으로 집행됐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1% 행복나눔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구성원이 기본급의 1%를 기부하면 회사도 그만큼 기부금을 낸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오픈 100일 기념 2억 원 기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성공적인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감사의 마음을 담아 2억 원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명환)에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 오픈 100일에 맞춰 인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100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세 드림식자재마트 대표, 착한ilter·착한가게 동시 가입

인천 공동모금회의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인 윤기세 드림식자재마트 대표와 직원들이 ‘착한ilter 및 착한가게’에 가입해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인천 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 25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드림식자재마트에서 ‘착한ilter 및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윤기세 대표는 “직원들이 뜻을 모아주어 착한ilter에 참여하고, 착한가게에까지 가입하게 되어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게 되니 기쁘고 함께한 직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동우화인켄, 성육보육원 봉사활동 및 은누리 상품권 전달

동우화인켄(주) 임직원들은 지난 4월 12일 평택시 성육보육원에서 보육원 아이들과 미니 운동회 및 원내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를 통해 은누리 상품권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동우화인켄 임직원들은 성육보육원 강당에서 신발날리기, 장애물달리기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어려웠던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선물했다.



경기 북부사업본부,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 수행기관 교육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는 지난 4월 17일 동녘지역아동센터 두레아트홀(고양시 소재)에서 2018년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 2분기 수행기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은 27개 지역아동센터에 총 7억 5,800여만 원을 지원한다. 김경희 북부사업본부 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에 복권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장애인의 날 맞아 성금 기탁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형석)는 지난 5월 20일 창암재 활원에서 도내 장애인 시설 복지 지원금으로 써달라며 1,000만 원을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주도 내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정형석 본부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성금을 전한다”고 말했다.



삼영교통, 근로자의 날 기념 사랑의 장학금 전달

(주)삼영교통(대표 강지운)은 지난 5월 1일 삼영교통 사무실에서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내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데 사용해 달라며 사랑의 장학금을 제주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도내 저소득가정의 자녀 4명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삼영교통은 1987년부터 매년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 행사 때마다 도내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



전남동부보훈지청, 어려운 보훈가족 지원 위한 협약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는 지난 5월 11일 순천에 위치한 전남동부보훈지청에서 전남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인 성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훈가족 생계, 의료, 주거환경개선, 교육·자립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동부보훈지청은 올해 가가호호 골목복지 및 보훈 나눔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뜻한 보훈 실천 확산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본부, 아름다운 기부기업 선정 감사패

전남 공동모금회는 지난 5월 15일 '아름다운 기부기업'에 선정된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름다운 기부기업' 감사패는 전남 공동모금회에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해마다 연탄봉사, 김장나누기, 장학금 지원 등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계비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동수 전북 아너 대표, 10대 전북 공동모금회장으로 취임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0대 회장으로 김동수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가 취임했다. 지난 2012년부터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로 활동하면서 모금회와 인연을 맺어 제10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 취임하게 됐다. 전주고등학교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동수 신임회장은 군산도시가스 대표이사, (주)동우 회장,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주)참프레 회장 및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 아너 회원, 가정의 달 맞이 봉사활동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주시 엄마의 밥상 지원 아동들에게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눔! 즐겁지 마니한 家!'라는 주제로 빵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는 행사다. 이날 만들어진 쿠키와 머핀은 전주시 엄마의 밥상 지원 아동들에게 따뜻한 간식으로 전달되었다. 전북 아너 회원들은 기부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착한ilter 만들기 앞장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원장 홍성화)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와 착한ilter 만들기 캠페인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체결한 '착한ilter 만들기 캠페인'은 삼성창원병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교직원들이 나눔에 참여하게 된다. 도내 종합병원 중 첫 번째로 착한ilter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삼성창원병원은 모인 성금을 도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기관 지원 등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도록 기탁할 예정이다.



경남에서 제작된 취약노인 전산관리 프로그램 전국 확대
 경남 공동모금회와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전선남)는 경남 취약노인 전산관리 프로그램 사용권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현훈)에 전달했다. 경남 공동모금회는 재가노인의 지속적인 사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취약노인 사례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전산 프로그램은 앞으로 전국 500곳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함께 사용하게 된다.

경북



경북 모금회, 2018 난치병학생돌기캠페인 실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와 경상북도교육청은 5월 한 달간 '2018 난치병학생돌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백혈병·심장병 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도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경북 교육계와 학생들이 실시한 나눔캠페인이다. 난치병학생돌기캠페인은 2001년 전국 최초로 진행됐으며, 17년간 모두 142억여 원을 모금해 1,219명의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15년간 수급비 아껴 이웃돕기성금 기부한 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노모(83) 할머니가 자신이 받는 수급비를 아껴 모은 5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경북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경산시 북부동에 거주하는 노모 할머니는 200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홀어르신이다. 할머니는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아 감사한 마음이 컸다며 이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에 15년간 수급비를 조금씩 모아 이웃돕기성금을 마련했다.

충남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8개소 착한정비가맹점 단체 가입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는 지난 5월 10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서비스센터 교육장에서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로 가입한 착한가게는 석림점 현대자동차, 오관점현대자동차, 동대점현대자동차, 안면점현대자동차, 금홍점현대자동차, 강경점현대자동차, 연무점현대자동차, 논산내동점현대자동차 등 총 8개소다.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 협약

충남 공동모금회는 지난 5월 24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본봉 부시장과 김완중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을 체결했다. 서산시는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저소득 주민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서산시는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금액 5,000만 원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나눔문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청주 동의보감 한의원, 충북 착한가게 1004호 가입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는 지난 5월 9일 동의보감 한의원(원장 김동완)에서 충북 착한가게 1004호점 가입 기념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충북 공동모금회 모금분과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판 전달식은 동의보감한의원이 천사를 상징하는 1004번째 착한가게에 가입한 것을 기념해 특별한 전달식을 마련했다. 김동완 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청주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 연합모금 성금 전달식

충북 공동모금회는 5월 10일 청주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회장 조경옥)에서 2018년 연합모금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연합모금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단체와 충북 공동모금회가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협력모금사업으로 현재 청주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를 비롯해 시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청주복지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경옥 회장은 "앞으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기부
#9004
(한 통에 2천원)

ARS기부
060-700-1212
(한 통에 2천원)

온라인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기념일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객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는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국내 최대의 기부자 클럽입니다.

경남 108호
방만혁 (주)금강 회장



“몇 년 전 건강 악화로 치료를 받으면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못 받는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커 기부를 결정했다.”

제주 89호
김남호 서현산업(주) 대표



“나눔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제주 90호
양시경 산방산랜드 대표



“나눔은 인생을 향기롭게 만들고 사회에 행복을 충전하는 아름다운 실천이다. 나의 나눔 실천으로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향기롭게 되길 바란다.”

인천 120호
송문성 (주)준서예건 대표



“나눔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다. 아름다운 나눔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서울 234호
원종민 원종민헤미리의원 원장



“나눔은 사랑이다. 사랑은 나누어야 커지듯 나눔도 실천을 해야 기쁨이 커진다. 많은 이가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길 바란다.”

서울 235호
최은석 창명빌딩 대표



“나의 나눔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다. 좋은 유산을 물려주셨으니 후대에도 나눔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서울 236호
김거석 님



“나누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 보람과 기쁨을 많은 사람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전북 47호
양승춘 양승춘치과 원장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남은 인생 동안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

광주 79호
이상철 (주)화인테크 대표



“광주 지역 기업인으로서 더 많은 사람이 오블레스 노블리주를 실천하고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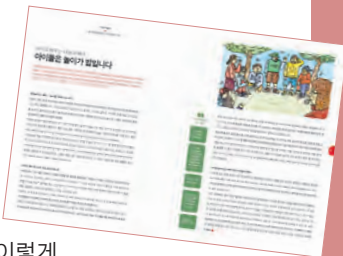
-  **중앙회** 김상헌 前 네이버 대표이사, 노소라 변호사
-  **서울 공동모금회** 임천복 소담연구소 소장, 조재천 스키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상순 님
-  **강원 공동모금회**故 최현자 님
-  **경기 공동모금회** 이희근 (주)미사리버서티 대표, 고재원 시월종합건설(주) 대표, 이선희 봉남 대표, 권용준 프로종합관리(주) 회장, 김무연 (주)평화 대표, 익명
-  **부산 공동모금회** 한성희 님, 최철관 (주)산양 회장
-  **대전 공동모금회** 박성배 일산종합건설(주) 대표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호 독자의견

이번 호를 읽고
벽찬 감동, 신선
한 충격을 받았
습니다. '아이들
은 놀이가 밥입
니다'를 읽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처럼 서로의
감정, 생각,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놀이밥 이야기에
공감이 됩니다.

장미향 · 경남 마산시

5월호 '네 꿈을
활짝 펼쳐라'를
읽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
히 경북 공동모
금회의 공부방
을 만들어주는 사업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가꾸어
가도록 해 우리 사회가 따뜻한 일면이 있음을 보
여준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우향화 · 서울시 용산구

5월호 '화제'를 읽어보니 만18세가 되면 아동보호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안정적인 자립은 고사하고 당장 거주할
곳도 변변치 않다는 게 서글픕니다. 법 추진 중이
라고 하니 하루빨리 법제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점순 · 부산시 동래구

참여방법

-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
(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열매 단행본 세트



우산



열매 배지, 열매밴드



USB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
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
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수홍씨와 어머니
(착한가정 정기부자)

당신이 사랑의열매입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20년 동안
5천만번의 기부를 통해
6천만명을 도왔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착한일터



착한가게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상담 080-890-1212
ARS 기부 060-700-1212

-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빈곤, 소외,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해 세워진 법정 모금 지원 기관입니다.
-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장 투명한 기부금 관리, 공정한 지원절차로 대한민국의 민간 복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나눔과꿈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복지 발전에 기여합니다.

2019년 나눔과꿈 사업신청 안내

사업소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 및 지원

접수기간

2018년 6월 11일(월)~7월 27일(금)

접수방법

나눔과꿈 홈페이지(www.sharinganddream.org)
접속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신청분야

꿈-기준에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
시도가 의미 있는 사업.
나눔-기준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진행방식 및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생산성,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신청자격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글로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단체 및 기관
(비영리사회적기업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나눔과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및 지원기준

구분	지원금액	사업기간
단기 사업(1년)	1억원 이하	2019. 1. 1 ~ 2019. 12. 31
장기 사업(3년)	5억원 이하	2019. 1. 1. ~ 2021. 12. 31

사업설명회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

일시	장소	분야
6.11(월) 14~16시	서울(대한상공회의소)	공통
6.12(화) 14~16시	서울(모금회 대강당)	환경
6.14(목) 14~16시	서울(모금회 대강당)	글로벌
6.15(금) 14~16시	광주(광주남구문예회관)	공통
6.19(화) 14~16시	서울(모금회 대강당)	문화
6.20(수) 14~16시	서울(모금회 대강당)	사회적경제
6.22(금) 14~16시	부산(부산상공회의소)	공통

사업설명회 접수방법

나눔과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선착순 마감)

문의

02-6262-3071, 3076

나눔과꿈 홈페이지->소통공간->Q&A공간 또는
실시간 상담이용 (10~17시 운영)





우유배달 배지와 사랑의열매

일면식도 없던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양호영 개인모금팀장을 연결시켜준 매개체가 바로 이 배지입니다. 양 팀장은 김 대표의 100억 원 사회 환원 뉴스를 접한 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연결된 것이 배달의민족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었습니다. 지인 중 한 분이 이 캠페인에 참가했던 거죠. 그렇게 연결되어 김봉진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 '사랑의열매'와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배지를 나란히 달고 갔습니다. '함께 해요'라는 의미였죠.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모금가 양호영 팀장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